



|| 발행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발행인 박노균 || 전화 02-3456-8157 || 팩스 02-3456-8159 || e-mail baljeon@baljeon.nodong.net

# 조합원 징계 즉각 철회하라!

## 사측, 행정소송 648명 제소

9.04파업 관련 징계자 중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승소자를 행정소송에 제기한 상태이다. 07년 11월 13일 접수를 시작으로 08년 2월 13일 까지 총 21건 조합원 648명을 행정법원에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신청을 했다. 지금 현재 상태는 1차 변론을 노사 쌍방이 제출중인 상태이다.(우측 표 참조)

## 사측의 치사한 이중플레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조합원 견책의 징계 시한이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끝이 난다. 그러나 견책을 받았다는 이유로만으로 각종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는 현시점에서 4대 중앙집행부는 이대로 좌시 하지 않음을 결의하였다. 징계철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간다.

사측의 행태를 보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라고 인정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소한걸 보면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임이 분명하다.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노사상생, 노사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이면에는 조합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짓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측에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나!



<조합원 징계 철회투쟁 모습>

조합원 징계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시 파렴치한 사측을 향한 발전노동자들의 분노를 목격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

## 9.04 사건 행정소송 현황

[2008.03.31 현재/ 회사제소 21건]

| 사업소   | 사건번호        | 재판부 | 원고   | 피고   | 접수일        |
|-------|-------------|-----|------|------|------------|
| 삼천포   | 2008구합5094  | 4다  |      | 송성복외 | 2008.02.04 |
| 영흥    | 2008구합5100  | 1나  | 남동발전 | 김상종외 | 2008.02.04 |
| 여수    | 2008구합5117  | 4나  |      | 이기석  | 2008.02.04 |
| 서울    | 2007구합42393 | 4나  |      | 황태하외 | 2007.11.13 |
| 인천    | 2007구합42294 | 4다  |      | 박대환외 | 2007.11.13 |
| 보령    | 2007구합42300 | 12다 | 중부발전 | 정영복외 | 2007.11.13 |
| 양양    | 2007구합42409 | 4나  |      | 정현수외 | 2007.11.13 |
| 군산    | 2008구합5087  | 1다  |      | 엄경식  | 2008.02.04 |
| 평택    | 2008구합6080  | 1나  |      | 유승현  | 2008.02.12 |
| 서인천   | 2008구합6066  | 4다  | 서부발전 | 차종완외 | 2008.02.12 |
| 태안    | 2008구합6073  | 1다  |      | 이용남  | 2008.02.12 |
| 신인천   | 2008구합5490  | 1다  |      | 박노균외 | 2008.02.05 |
| 영남/부산 | 2008구합5063  | 4나  | 남부발전 | 박성희  | 2008.02.04 |
| 하동    | 2008구합5476  | 1다  |      | 이종술외 | 2008.02.05 |
| 청평    | 2008구합5070  | 1다  |      | 김현동외 | 2008.02.04 |
| 일산    | 2008구합6271  | 1다  |      | 안창근  | 2008.02.13 |
| 울산    | 2008구합6288  | 4나  |      | 류은도외 | 2008.02.13 |
| 호남    | 2008구합6349  | 1다  | 동서발전 | 장우창외 | 2008.02.13 |
| 당진    | 2008구합6295  | 1다  |      | 최인호외 | 2008.02.13 |
| 동해    | 2008구합6264  | 1나  |      | 손승기외 | 2008.02.13 |
| 쟁대위원  | 2008구합5483  | 1다  | 발전5사 | 이준상외 | 2008.02.05 |

# 발전노동자 총 단결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 "제8년차 대의원수련회 및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노동조합은 4월28일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대의원 및 지부장들이 참여하여 대의원수련회를 하였다. 이날 대의원들은 피곤한 여색도 없이 발전노동자들의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정세

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의 장을 가졌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함하여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얻은 결과를 총연맹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은 4월 29일 태안화력지부 강당에서 10시부터 1부 순서로 3,4대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11시30분부터 21시51분 까지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사업기조로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기본권 제한 제도 무력화 ▲정책, 교육, 선전사업 중심으로 현장조직력 강화 ▲공공산별노조 토대 구축 ▲부당징계 철폐를 확정하였다.(자세한 대의원대회 회의결과는 홈페이지 알림 참조)

## 제118주년 세계노동절 결의대회 참석!

제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특히 공공운수연맹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사전결의대회를 갖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경부운하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6~7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서울 대학로에서 오후 1시 20분부터 열린 서울, 수도권 집회 연맹 사전 결의대회는 공공노조, 운수노조, 직할협의회 소속 노조 등 모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맹은 이어 “공공운수노동자는 지난 2002년 발전, 가스, 철도 파업으로 공기업 사유화 방향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있다”며 “118년 전 오늘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



해 투쟁했듯이 2008년 오늘 우리는 공공운수부문 노동자 생존권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노동자들은 서울 대학로를 포함, 전국 10개 지역에 400여명이 결함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발전노조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었다.

## 박노균 위원장 가스노동자 총력 결의 대회에서 2008년 연대 투쟁 의지 밝혀...

2008년 5월 1일 제 118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에 전국의 가스노동자 2000여명이 과천 정부청사앞에 한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직도입 확대 정책 저지 및 에너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가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이날 1시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LNG 직도입물량을 4%(2007년)에서 최대 20%(2014)까지

늘리려는 LNG 직도입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천연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이다. 박노균 위원장 및 철도노조 황정우 위원장이 참석하여 2.25 3사 공동파업의 연대정신을 보여주었다.

박노균 위원장은 2008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추어 또 다시 3사가 주축이 되어 전체 공공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공동투쟁을 전개하자고 역설하였다.

# 구조조정 박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